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의 문학*

권순열**

<차례>

- I. 서언
- II. 학포의 문학세계
- III. 후손들의 문학
- IV. 동도지인(同道之人)의 문학
- V. 결어

I. 서언

세상에서 흔히 화순 양씨 가문을 12대 한림(翰林)의 가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충효절(忠孝節) 삼강(三綱)의 가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화순의 양씨 가문이 세상의 칭송을 받고, 조선조 선비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양팽손(1488, 성종19~1545, 인종1)이 있었다. 그의 자는 대춘(大春)이며, 호는 학포(學圃)이다. 조선 중기 기존 훈구파와 신흥 사림파가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기묘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생사와 영욕을 초월한 명현(名賢)으로서 송백(松柏) 같은 절조를 세웠다. 특히 정암 조광조에게 보였던 동도지인(同道之人)으로서의 의리는 오늘날까지도 그 찬연한 빛을 발하고 있다.

학포는 폐고 기간 동안 자녀 교육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여가가 있으면 시문을 창작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학포가 자녀 교육에 힘쓴 결과 둘째 응태와 셋째 응정이 과거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특히 셋째 응정은 문장과 학문에 일가를 이루어 큰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학포의 정신적 맥을 추적하고 구축하기 위해 학포의 시문과 그의 자손인 송천 양응정, 충민공 양산숙, 거오재 양만용의 시문까지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학포의 예술과 사상이 당시의 지성들과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조광조의 시와 신잠의 시도 다루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화순 양씨 가문에 대한 연구의 차원을 넘어 기묘사림의 사상적 자장(磁場)과 호남사림의 정신적 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II. 학포의 문학 세계

1. 회한과 여유

폐고(廢錮) 기간 동안 학포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이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 이 논문은 2001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넘은 것이었다. 그래서 학포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되새겨 보았지만, 그 근거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방황해야 했고, 절망 앞에 서야만 했다. 하지만 학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먼저 죽어간 동지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았고, 후인들에게는 찬란한 빛을 던졌다. 그래서 고봉 기대승은 학포에 대해, “덕업(德業)으로 칭송받았네.”¹⁾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고봉의 예찬은 가장 대표적인 예에 속하며,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는 물론 오늘날까지 학포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從事學問 학문에 종사하면서
 謙言學圃 겸허히 농사를 배운다 말하네.
 樊遲之請 번지의 청함을
 公豈所慕 공이 어찌 사모하는 바이라?
 學于靜菴 정암에게 배워
 得其門路 학문의 길을 얻었네.
 竹樹之院 죽수서원에
 配食其傳 스승과 함께 배향되었네.
 ‘學圃歌’²⁾

김수민은 『기동악부』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 자신의 역사 안목과 문학적 심미안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권선징악과 포폄을 드러내고 있다.³⁾ 김수민이 노래한 385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포가’이다. 이 ‘학포가’는 학포와 정암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김수민이 양인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양팽손의 ‘학포’라는 호이다. 이 ‘학포’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번지(樊遲)가 그의 스승인 공자에게 채전(菜田) 가꾸는 것에 대해 배우기를 청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⁴⁾ 그런데 수기치인(修己治人)이 선비의 목표이지, 농사를 짓는 일이나 채전을 가꾸는 것은 선비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양팽손이 ‘학포’로 호를 삼은 것은 선비로서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학포’로 호를 삼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도가 있었을 것이나, 우선 두 가지 의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전원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자신의 이상향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실천한 구체적 작업이 그림과 시작(詩作)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다. 학포 자신은 비록 생명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래가 닫힌 존재였다. 그래서 학포는 아들들을 통해 그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특히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교육은 학포의 부친인 승지공 이하 때부터 시작된 가업이기도 했다. 학포도 아들들에 대한 교육을 직접 담당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직접 교육하는 방법을 추정(趨庭)⁵⁾이라고 한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유가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아니다. 유가의 전통적

1) 奇大升, ‘管押使梁公挽’, 『高峰集』, 續集 卷之一 參照.

2) 金壽民, 『箕東樂府』 卷之五.

3) 申章燮, 『韓國「箕東樂府」註解』, 국학자료원, 1997, 1쪽.

4) 樊遲請學稼 子曰 吾不如老農 請學爲圃 曰 吾不如老圃 樊遲出 子曰 小人哉樊須也. 『論語』, 「子路 第十三」, 參照.

인 교육 방법은 역자이교지(易子而教之)의 방법이였다. 하지만 학포는 이런 추정이라고 하는 가문의 전통적 교육 방법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 양팽손은 ‘학포’로 호를 삼고 개인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사회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켜 송백 같은 절조를 세웠다. 그리고 정암과 함께 죽수서원(竹樹書院)에 배향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은 시가 바로 김수민의 ‘학포가’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포가’가 학포의 전모를 올바르게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묘사화 이후의 학포의 삶이란 참담함 바로 그것이었다. 동도지인들은 사약을 받거나 원지(遠地)에 부처(付處)되고 말았다. 그래서 지치(至治)를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선비로서 수기치인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회한을 떨칠 수 없었다.

五載優遊只樂天 오 년 동안 노닐면서 다만 천명만을 즐기고
 林泉寒月送殘年 임천의 차가운 달빛에 여생을 보내네.
 經綸志業終無用 경륜에 뜻을 두었으나 결국 쓰이지 못했는데
 洙泗源流喜有傳 수사의 흐름이 전해짐이 기쁘네.
 道學未弘身欲老 도학을 크게 못하고 몸만 늙어가며
 觀書久廢病相纏 책 보기를 폐한 지 오래인데 병만 얽히네.
 何時暑退沈疴去 어느 때나 더위가 가고 질은 병도 물러가
 携酒臨江賞風煙 술을 가지고 강에 임하여 풍연을 구경할꼬?
 ‘述懷⁶⁾

학포의 ‘술회’라는 시이다. 이런 제목의 시는 대개 작자의 처절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기묘사화 후의 학포의 처지와 소망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폐교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후에 쓴 것이라면 학포의 나이 30대 후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학포는 산수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천명을 즐기며 생활하고 있었다. 경륜(經綸)에 뜻을 두고 지치의 이상을 꿈꾸었지만 이미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더구나 정적들의 음해는 계속되어 앞날을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따사로운 태양의 은혜를 느낄 수는 없고 오직 차가운 달빛만 드리운 시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종 치세는 학포와 기묘사림에게는 어둠의 시대였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유학이 진흥되고 학풍이 날로 떨치는 시기였다. 중종 시대의 덕화가 여기저기 많은 곳에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기묘사림에까지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때문에 학포는 그 대열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 혜택을 누릴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병마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스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학포가 술을 들고 강에 임하여 풍연(風煙)을 구경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한다는 것은 희망일 뿐 아직 빠른 상황이었던 것 같다.

不識騎牛好 소를 타는 것이 좋은 줄 몰랐더니
 今因無馬知 이제 말이 없어 알게 되었네.
 夕陽芳草路 석양의 방초 우거진 길에

5) 『論語』, 「季氏 第十六」 參照.

6) 梁彭孫, 『學圃集』 卷之一.

春日共遲遲 봄의 해도 함께 천천히 가네.

‘偶吟’

이 시는 매우 평이하면서도 뛰어난 작품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시는 학포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 세계 등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 시를 통해서 보면 학포가 비록 술을 가지고 강가에 임하여 풍연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분명하다. 소를 타고 봄을 즐긴다는 것은 그가 이제 나름대로 보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소를 탄 것은 단지 말이 없어서마는 아닐 것이다. 뚜벅뚜벅 천천히 걸어가는 소의 모습은 그가 여유를 가지고 추구한 장구한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그 계획의 구체적 실천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회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선계의 지향

꽤 긴 기간 동안 학포의 주요 관심은 교육이었다. 그러나 여가가 있으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다. 물론 이런 생활 방식은 학포만의 유일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묘명현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학포는 거처를 월곡에서 쌍봉으로 옮겼다. 쌍봉은 산수가 대단히 아름답고 사람의 왕래도 비교적 적은 곳이었다. 그리고 월곡에서도 가깝고 연고도 있어 학포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상적 공간이기도 했다.

家住清江上 집이 맑은 강가에 있어
晴窓日日開 개인 날은 매일 창을 열어 놓네.
護村林影匝 마을을 두른 숲 그림자 에워싸고
聾世瀨聲催 세상사 귀먹게 한 여울 소리 재촉하네.
客棹隨潮泊 객의 노는 조수 따라와서 정박하고
漁船捲釣廻 어선은 낚시를 걷고 돌아오네.
遙知臺上客 멀리 짐작컨대 대 위의 객이
應爲看山來 아마 산 구경 위해 오고 있으리라.⁷⁾

이 시는 ‘산수도(山水圖)’의 제화시(題畫詩) 중 첫 번째 작품이다. 학포는 산수도에 2수의 제화시를 쓰고 있는데, 이 시는 그 중 첫 번째 것이고, 다음에 소개하는 시가 두 번째 것이다. 회화는 원래 보여주는 것으로 그 말을 대신한다. 그래서 그림을 말이 없는 시(無聲詩)라고 한다. 하지만 그림 자체만으로는 작가의 의도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작가의 사상과 의도를 극명하게 제시하고 시와 그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제화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화시는 회화적 이미지가 많이 도입되어 있고, 산수도가 어떤 그림인가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강가의 집,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숲, 귀먹게 할 정도로 우렁차게 쏟아지는 폭포, 낚시를 걷고 돌아오는 배 등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낸 세계가 바로 산수도이다. 학포는 시와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그의 거주 공간인 쌍봉을 이상향으로 표현한 것이다.

7) 學圃 山水圖 題畫詩에 작품 제목이 없어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江濶飛塵隔 강 넓어 날리는 먼지 막혀 있고
 灘喧俗語聾 여울이 시끄러워 속세의 말에 귀먹었네.
 魚舟莫來往 고깃배는 내왕하지 마라
 恐與世相通 세상과 서로 통할까 두렵네.

이 시는 ‘산수도’ 제화시의 두 번째 작품이다. 앞의 제화시가 산수도에 대한 시적 설명이라면, 이 제화시는 작가의 의도를 강하게 천명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속세의 말에 귀먹었다는 것과 고깃배로 하여금 내왕하지 말라는 것이다. 속세의 말에 귀먹은 이유는 여울이 시끄러워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우선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어 내왕이 드물기 때문에 속세의 일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예 속세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그리고 고깃배로 하여금 내왕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의미 선상에 놓인다. 배는 운송과 생업의 수단이다. 그런데 배로 하여금 왕래를 말라는 것은 이곳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지 말라는 것이다.⁸⁾ 학포는 자신이 건설한 이상 세계를 속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를 깨닫고 자신만이 무아지경에서 살다간 성자들의 행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산수도’는 학포가 설계한 이상향의 건설과 무관하지 않다. ‘산수도’의 작자 규명에 있어서도 학포의 이런 심리적 구조와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쌍봉이라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翠壁盤回水鏡寒 푸른 암벽 서리고 거울같이 차가운 물
 當流亭子爽雕欄 강 위에 지은 정자 무늬 새긴 난간도 시원하네.
 風吹細浪魚成隊 바람에 이는 물결 고기는 떼 이루고
 鷗鷺清波雪漾灘 갈매기 밀고간 물 눈같이 하얀 여울.
 白白山雲幽更悅 하얀 산 구름 그윽하여 더욱 좋고
 雙雙歸鳥暮兼觀 쌍쌍으로 가는 새 석양에 함께 보네.
 仁居智樂公能了 인에 거하고 지를 즐긴 일 공은 이미 마쳤으니
 昏醉榮名搃鼠肝 영화나 명예에 취한 것은 쥐의 간으로 여기네.

‘次宋知止堂先生觀水亭韻’⁹⁾

지지당 송흙의 관수정 시를 차운한 3수의 시 중 첫 번째 시이다. 송흙은 가학(家學)에 머물러 있던 학포를 새로운 학문의 세계로 안내한 스승이다. 그리고 학포를 동방의 안자(顏子)와 같은 존재로 극찬한 선견지명을 가진 분이기도 하다. 학포의 이 시가 묘사하고 있는 풍경은 천상적인 공간과 지상적인 공간, 그리고 공존의 공간 이렇게 세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천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산 위의 하얀 구름과 쌍쌍으로 날아가는 새이다. 다음으로 지상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정자 주위를 감도는 시냇물과 그 물속의 고기 떼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것이 정자이다. 때문에 이 정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가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선비들이 이 공간에서 삶의 찌꺼

8) 權純烈,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研究』, 月印, 2002, 311쪽.

9) 梁彭孫, 앞의 책, 같은 곳.

기를 털어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엿보는 것도 정자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¹⁰⁾

Ⅲ. 후손들의 문학

1. 웅건한 기상

학포는 8명이라는 많은 아들을 두었고, 후세 교육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둘째 응태와 셋째 응정은 과거에 합격하여 입신출세의 길을 열었다.

응태의 자는 숙전이며, 호는 후포이다. 중종 38(1543)년 문과에 급제한 후 동래부사, 예조 참의를 지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이나 중국에 사신으로 갔었다. 이것은 그가 뛰어난 문학 적 재능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행길에 옥하관(玉河關)에서 죽어 문명(文名)을 떨치지지는 못했다.

응정의 자는 공섭이며, 호는 송천이다. 송천은 중종 35(1540)년에 22세의 나이로 생원시에서 장원을 했다. 그리고 경술(1550)년 겨울에 송천은 석천 임억령과 아주 독특한 수창을 하였다. 당성(棠城) 지금의 해남에서 송천은 병법과 전략을 중형무진 구사하여 시로써 자웅을 결정하는 대결, 다시 말하면 ‘시전(詩戰)’을 했다. 이 시전은 한국문학사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사에도 전무후무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송천은 명종 10(1555)년 대제학 정사룡의 추천으로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도 하였고, 다음해 명종 11(1556)년에는 38세의 나이로 중시(重試)에서 장원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크게 문학 적 성취를 이루었으며, 목릉성세의 주도 인물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¹¹⁾ 송천 시의 한 특징은 기상이 대단히 웅건하다는 점이다. 송천의 시문학은 아주 특이하게도 북방적 정서와 대륙적 기풍이 넘치는 면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이러한 시풍은 이규보 이후 한국문학사에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을 이루는 그의 웅건한 기상은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하서 김인후는 일찍이 그의 기상을 칭찬하여, “양우는 기상이 뛰어나고 확고하여 서로 맞설 사람이 없다.”¹²⁾라고 한 적이 있었다. 몇 마디 간단한 지적이지만 송천의 위인을 극명하게 표현한 말로 보인다.

梁公名父子 양공의 유명한 부자는
風壑嘯於菟 골짜기에 바람 일으키는 포효하는 범들이었네.
欲投五色筆 오색의 붓을 던져 버리고
彎弓西射胡 활을 당겨 서쪽 오랑캐를 쏘려 했네.
逶迤金馬客 오랫동안 금마에서 맴돌았던 객이었으며
落魄高陽徒 뜻 잃은 고양의 무리였네.
時來展志力 때가 와서 뜻과 힘을 펴면

10) 權純烈, 위의 책, 312쪽.

11) 李晬光, 『芝峰類說』 卷十四 文章部 7 詩藝 參照.

12) 金河西麟厚贊其氣像曰 梁友氣岸凌凌 無與頡頏.(李漢, ‘松川先生行狀’, 『松川集』, 卷之五)

跡弛非凡夫 뛰쳐나감이 범부가 아니리라.
 一麾諒所願 한번의 출사가 진실로 원하는 바이나
 高位焉足蹈 높은 지위를 어찌 족히 밟으리오?
 ‘五評事詠’¹³⁾

택당 이식이 다섯 평사에 대해 읊은 詩 중의 하나이다. 택당은 이 시에서 학포와 송천을 ‘골짜기에 바람 일으키는 포효하는 범들(風壑嘯於菟)’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학포 부자의 범접할 수 없는 기상을 표현한 말이다. 송천은 내직에서의 정쟁이나 글쓰는 일보다는 변방에서의 호쾌함을 즐겼다. 송천은 자신에 대해 표현하기를, “내 글 쓰는 일에는 자신이 없고 오직 센 활로 오랑캐를 쏘아 맞힐 줄을 알 뿐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다.¹⁴⁾ 이것은 변방 생활이 좋아서 한 말은 아니었다. 송천은 명종 19(1564)년 고시관으로서 ‘천도(天道)’라는 제목으로 선비들을 책문하여 율곡 이이를 장원으로 뽑았다. 그 후 중국 사신이 와서 그 책제와 대책을 보고는 천하의 문장이 낸 책제요, 일대의 현사가 쓴 대책¹⁵⁾이라고 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만큼 한때는 문장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송천은 정적들과의 끝없는 갈등 속에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다. 택당의 이 시는 학포와 송천 두 부자의 고뇌와 기상과 경륜을 잘 보여주고 있다.

心事從前多所違 심사가 전부터 어긋남이 많으니
 帝譴未解悲填喉 황제의 노여움 풀지 못하여 슬픔이 목에 차네.
 聊將洞庭爲酒盃 그저 동정호로 술잔을 삼아
 一酌更進君山羞 한잔 떠서 다시금 군산에게 드리 바치네.
 ‘朝遊北海暮蒼梧’에서¹⁶⁾

이 ‘조유북해모창오’는 동정호를 잡아서 술잔을 삼을 만한 송천의 웅대한 기상이 보다 완숙하게 처리되어 있는 시이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송천이 술을 마신 주된 원인은 정적과의 갈등에서 오는 응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거대한 호수인 동정호를 술잔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 응어리가 바다만큼이나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아무튼 송천은 이런 시를 통해 자신의 호쾌한 기상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그래서 임억령은 송천의 기상을 칭송하여, ‘송양평사(送梁評事)’에서는 맹호보다도 뛰어난 육박(六駝) 같은 존재로, ‘증양상사(贈梁上舍)’에서는 보검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송천의 시에 대해서는 ‘그대 시는 마치 용맹한 병사가 장성굴에서 말을 먹이는 것 같다.’¹⁸⁾는 표현 등으로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있다.

2. 국난 극복의 충정

13) 李植, 『澤堂集』續集 卷之一.

14) 李滲, ‘松川先生行狀’, 『松川集』卷之五 參照.

15) 天下文章之所題 一代賢士之所作.(李滲, ‘松川先生行狀’, 『松川集』卷之五 參照)

16) 梁應鼎, 『松川集』卷之二.

17) 權純烈, 앞의 책, 126쪽.

18) 君詩如猛士飲馬長城窟.(林億齡, ‘再用前韻’ 二首, 『石川集』第二冊 參照)

학포의 의리정신은 자손을 통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더 찬란한 빛을 발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많은 손자들이 즉시 창의(倡義)하여 목숨을 바치고자 했다. 특히 충민공 양산숙의 활동은 참으로 놀라운 점이 많았다. 그는 천리 길 사선(死線)을 뚫고 남방의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행재소가 있는 의주까지 갔다. 그때 선조 임금의 산숙에게 공조좌랑을 제수하고 각별하게 예우했다.

千里剗肝謁紫宸 천리 길에 간담을 쪼개내어 임금을 뵈어
密承酬酌玉音頻 긴밀히 말씀 나누며 옥음을 자주 들었네.
殊恩到骨終何補 특별한 은혜 뼈에 사무친데 결국 어떻게 도울 것인가?
一死方知報主辰 한번 죽음이 임에게 보답하는 때임을 비로소 알겠네.¹⁹⁾

양산숙이 선조를 알현한 후 지은 시이다. 창의를 결심했을 때 이미 죽음을 각오했지만 다시 한번 죽음으로써 임금에게 보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실 다른 계획도 없었다. 오직 전장터에 나가 싸우다 죽는 것만이 임금에 대한 보답이었다.

산숙은 임금을 알현하고 다시 의병과 합류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가동청정은 전에 당했던 울분을 씻기 위해 다시 진주성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할 작정이었다. 진주성은 호남의 관문과 같았다. 진주성이 무너지면 적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 싸우는 격이 되어 앞으로 적을 막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산숙은 홍함과 함께 명나라 장수 유정(劉綎)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국 진주성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때 의병장 김천일은 수영에 능한 산숙에게 탈출하여 이 원수를 박멸할 계책을 세우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산숙은 “내 이미 일을 함께 하였으니, 마땅히 함께 죽겠습니다.”²⁰⁾라고 말하며 꽃잎처럼 남강 물에 사라져 갔다.

상국 이항복이 말하기를, “임진왜란에 조용히 죽어 지조를 잃지 않은 사람은 김천일과 양산숙 두 분뿐이다.”라고 하였다.²¹⁾

양산숙은 삶의 길을 거부하고, 죽음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동지들과 남강에 몸을 던져 장렬한 최후를 마쳤으니, 당시 그의 나이 33세였다. 후일 그의 충절을 기려 진주와 나주 두 곳에 사우가 세워지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충민의 시호가 내려졌다.

그런데 양씨 가문의 시련은 임진란으로 그치지 않았다. 임란 5년 후 정유(1596)년에는 거의 멸문에 이르는 화를 입었다. 하지만 여자를 인격체로서 대우했고, 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갖추기를 요구했던 양씨 가문의 부녀자들은 남자들 못지 않게 뛰어난 몸가짐을 보였다. 송천의 부인 박씨는 두 아들 산룡, 산축과 더불어 가솔들을 이끌고 나주 삼향포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배가 연안에 도착하기 전에 적선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포성이 하늘을 진동하였다. 이에 화를 면할 수 없음을 안 박씨 부인은 아들 형제를 불러 이르기를, “내 大夫

19) 李民弼, ‘蟠溪公行狀’, 『松川集』 卷之七 收錄.

20) 朴在馨, 『海東小學』, 善行 參照.

21) 公嘗勸山璫出城 山璫曰 其與同事 當與同死 卒從公而死 李相國恒福曰 壬辰倭變 其從容就死 不失所操 唯金梁二人而已.(朴在馨, 『海東小學』, 善行)

의 아내로서 욕을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고는 강에 투신하였다. 그러자 아들 형제 산룡과 산축이 뛰어 들고, 산룡의 아내 유씨, 산축의 아내 이씨, 산축의 아내 고씨, 딸인 진사 김광운의 아내, 현령 임환의 첩이었던 산룡의 서녀, 족녀인 김두남의 아내도 강에 투신하였다. 이 중에 산축의 아내 이씨, 산축의 아내 고씨는 하인들이 건졌으나 나머지는 모두 운명하였다. 이렇게 송천 가문에서는 8명이 비장한 최후를 마쳤다. 이들의 비장한 최후는 모두가 학포로부터 송천을 거쳐 가문에 내려온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의 발로요, 모든 일을 충과 효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던 송천의 평소 가르침의 실천이기도 했다.²²⁾

학포 가문의 충의정신은 계속 이어졌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조상의 충의정신을 또 한번 드러낸 사람이 증손 만용이다. 만용은 산축의 유복자이며 효열공 고종후의 외손이기도 하다. 그는 이미 어려서부터 스승 수은 강향으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

之罫實才子 지부는 참으로 재주 있는 자라
不下洛陽賈 낙양의 가생보다 못하지 않네.
落筆數千言 붓만 잡으면 수천 자를 쓰니
足追大小雅 대아와 소아를 따를 만하네.
‘用韓詩之罫句語招梁生’²³⁾

수은 강향의 시이다. 만용이 집에 가서 안부 편지만 보내고 오지 않자 강향이 빨리 오도록 재촉한 것이다. 당시 만용의 나이 13세였는데 재주가 출중했다. 강향은 이 시에서 만용을 한나라의 가의(賈誼)보다 낫다고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만용이 『시경(詩經)』을 따를 만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비록 제자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스승의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강향은 만용에 대해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만용이 어려서부터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인재였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용은 스승의 기대에 부응해 인조 11(1633)년 사마시에 장원을 하였다. 그는 충효절 삼강의 집안에 태어나 위포시절(韋布時節)부터 대의로써 스스로를 독려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의리이다. 혈기를 가진 자라면 그 누구나 몸을 돌볼 겨를 없이 국난에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 호남은 원래 충의의 고장으로 그 옛날 임진왜란 때에 이미 그 의열을 보여 주었는데, 더구나 임금이 포위 속에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이겠는가?”²⁴⁾라는 격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해서 청나라에 대항했다.

平戎無策有長纓 오랑캐 평정하는데 좋은 계책이 없어
撫劍中宵氣不平 한밤중 검을 매만지며 심기가 편치 않네.
想應南漢山頭月 생각건대 남한산성 위의 달만은
照得孤臣一片誠 외로운 신하의 작은 충성을 비추리.

22) 權純烈, 앞의 책, 281쪽.

23) 姜沆, 『睡隱集』 卷一.

24) 主辱臣死 古今通誼 凡有血氣者 古當妄身赴難 而惟我湖南 素稱忠義之邦 曾在壬辰義烈已著 況此君父在圍之日乎.(梁曼容, 『據梧齋集』, 別集 附錄 卷之二)

만용이 병자호란 때 전장에서 지은 시이다. 그의 참담한 심경이 잘 나타난 시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대의를 위해 창의를 했지만 전황은 매우 불리했고, 나라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기구의 “오랑캐를 평정하는데 계책에 긴 끈이 없다.”는 것은 막상 어떤 뽀족한 계책이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영(長纒)’은 한나라 종군(終軍)의 고사에 등장하는 것으로 ‘좋은 계책’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용은 검을 매만지며 밤 깊도록 전략을 숙고했다. 하지만 임금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임금이 있는 남한산성에서는 연락이 두절되어, 만용이 창의를 외치며 목숨을 내던지고 있는 것조차 전혀 모르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만용은 임금이 자신의 애국 충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안타깝게도 강화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에 있던 인조가 항복하였다. 여기에서 분명히 일어섰던 만용의 창의도 꺾일 수밖에 없었다.



25) 梁曼容, 『據梧齋集』 卷之一.

IV. 동도지인(同道之人)의 문학

1. 절명시

개인의 운명이나 한 국가의 역사도 심한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이다. 주위 환경과의 대립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이것을 무사히 극복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끝내는 좌절과 멸망에 이르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국가간의 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 상민의 경우 역시 이해득실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선비간에는 신과 의가 관계의 기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따질 수 없고, 고도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준거해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선비들의 행동의 준거는 맹자의 가르침²⁶⁾에도 잘 나타나 있다. 유방만년(遺芳萬年)이나 유취만년(遺臭萬年)이나의 갈림길은 자신의 행동 양태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예를 얻는다든지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이며,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죽음에 이를지라도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양심의 준거가 흔들리는 일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살신성인이요, 사생취의의 정신이다. 이것이 학포에게 운명처럼 지워진 행동 준거이기도 했다.

대개의 경우 만남은 인간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학포의 인생에 있어서 정암과의 만남은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로 남는다. 학포는 정암이 능주에 귀양을 온 후 사약을 받는 날까지 그의 좌우를 떠나지 않았었다. 매일 도의를 강토하고 그의 말벗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학포의 인생에 있어서 정암과의 만남은 빛이며 어두움이기도 했다. 학포는 정암과 얽힌 인연으로 27년이나 폐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염습에 참여하고 정암의 체백(體魄)을 운구했던 장자 응기는 평생 과거 시험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묘사화 후에 학포 자신은 물론 자식까지 엄청난 비운을 겪게 된 것이다.²⁷⁾

과직되어 고향인 능주에 돌아온 학포는 거의 매일 정암을 만났다. 이때에 정암은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이 여기서 서로 공유하게 된 것이 아마도 우연만은 아니니 서로 연마를 하여 본뜻을 이룩하고 큰 허물이나 짓지 않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 말에 대해 학포는, 이제 인정이 망가뜨려진 판국에 우리가 귀양을 와서 이렇게 모여서 못다 한 학문을 마치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²⁸⁾ 이들은 귀양지에서, 비록 언제일지는 몰라도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동도지인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도를 구하고 우의를 극진히 했다. 하지만 정암에게 주어진 상황은 날로 어렵기만 했다.

誰憐身似傷弓鳥 누가 이 몸이 활에 상한 새 같음을 가련히 여길꼬?
自笑心同失馬翁 마음이 말을 잃은 늙은이 같음을 스스로 웃네.
猿鶴定嗔吾不返 원숭이와 학은 틀림없이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화낼 것이나
豈知難出覆盆中 덮어놓은 동이 속에서 나오기 어려움을 어찌 알 것인가?

26) 『孟子』, 告子章句上 參照.

27) 權純烈, 앞의 책, 284쪽 참조.

28) 梁彭孫, 앞의 책, 卷四 附錄 年譜 參照.

정암이 귀양지 능주에서 지은 작품이다. 당시 정암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자신을 ‘활에 상처를 입은 새’로 비유하고 있다.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은 새는 활만 보아도 놀라고, 궁수만 보아도 놀랄 수밖에 없다. 주변의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식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엎어놓은 동이 속’으로 인식하고 있다. 엎어놓은 동이 속은 하늘의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즉 자신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음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도 없고, 또한 임금의 용서도 기대할 수도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愛君如愛父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처럼 사랑하였고
憂國若憂家 나라 근심하기를 내 집처럼 근심하였네.
白日臨下土 해가 아래 세상을 굽어보니
昭昭照丹衷 밝게 충정을 비추리.
‘絕命詩’³⁰⁾

정암이 사약을 받고 임종에 지은 절명시이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어구로 되어 있으나 정암의 사상을 명료하게 보여 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정암은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아들이 아버지께 효도하듯이, 가장이 집안을 다스리듯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신이 임금과 나라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였건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사는 변하기 쉬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늘의 이치는 변하지 않는 법이다. 태양이 언제나 한결같이 지상을 굽어보고 있으니 언젠가는 자신의 충심이 환하게 드러나리라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 몬 소인배들에 대한 경계이면서 백일과 같이 변함없이 밝은 정치를 베풀고 아울러 자신의 충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임금에 대한 마지막 기대라 할 것이다.³¹⁾

이러한 정암의 태도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게 되어 있다. 신하의 입장에서 신하와 임금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윤리의 기초는 충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충(忠)이 애(愛)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윤리의식의 기초가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윤리의식이 바뀌게 되면 행동의 양태도 바뀌게 된다.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 사이의 행동의 양태는 확연히 다르다. 혈연집단에서 구성원간의 도덕적 책임은 무한하다. 그러나 공적인 집단에서의 책임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군신간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책임은 엄밀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³²⁾ 그런데 자신의 행동의 준거를 애에 둘 때, 그의 책임은 무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금을 깨우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되고, 이 지나침이 때로는 과격함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자전(自專)으로 흘러 역린을 건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묘 사림의 수난은 현실

29) 『大東詩選』 卷之二.

30) 『中宗實錄』 37, 14年 12月 丙子條.

31) 서영숙, 「정암 조광조의 시에 나타난 갈등양상」, 『古詩歌研究』 第九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2, 273쪽.

32) 晏子, 『晏子春秋』, 內篇 問上 參照.

을 뛰어넘는 지나친 졸속과 과격함에도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³³⁾

2. 은자의 고뇌

학포의 시에 수창시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포가 동도지인들과 나누었던 수창시는 당시 지식인들의 사유의 궤적과 기묘현인들이 겪어야 했던 방황과 좌절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존하는 『학포집』에는 대유 김구와 영천 신잠과의 교유시가 몇 편 남아 있다. 대유는 기묘사화 때 개령에 유배되었다가 수개월 뒤에 죄목이 추가되어 남해로 이배되었다. 대유는 남해로 이배되어 있을 때 학포에게 자주 시를 보내 자신의 회포를 표현했다. 그래서 학포는 남해까지 대유를 방문해 위로하고 시를 수창하기도 했다. 영천 신잠은 신숙주의 증손으로 1519년에 현량과에 급제하였으나 기묘사화로 파방(罷榜)되었다. 그 후 20여 년간 아차산 아래에 은거하며 서화에만 몰두했다. 그는 대나무와 포도 그림으로 유명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탐매도’와 ‘화조도’가 그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는 문장도 뛰어나 삼절(三絶)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학포는 영천과 세 차례에 걸쳐 6수의 수창을 한 것 같다. 이 중 현존하는 학포의 시는 3수이고, 영천의 시는 6수이다. 영천의 수창시는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데, 학포의 3수는 표실되었다. 여기서는 영천이 학포에게 주었던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江介秋風起	강가에 가을 바람이 이니
客子愁暮年	나그네가 모년을 슬퍼하네.
淒淒對寒雨	쓸쓸히 차가운 비를 대하며
漠漠望長天	아득히 먼 하늘을 바라보네.
歸思青楓外	푸른 단풍나무 숲 밖으로 가고파
幽期白鳥前	백조 앞에서 그윽한 기약을 했네.
殘生無限恨	여생에 한없는 한을
聊與一杯傳	한 잔 술로 그대에게 전해보네. ³⁴⁾

이 시를 통해서 보면 영천이 은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기묘사화의 참담함이 그지없는 사건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자 그 아픔도 조금은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밀려드는 아픔이 세월과 더불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었지만 그를 감돌고 있는 정적들의 킁박과 인간적 고뇌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경륜의 뜻을 완전히 접어버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의 처지는 강가에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쓸쓸히 차가운 빗속에 내몰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달관에 이른 도연명의 그것과는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으로 돌아가고픈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백조 앞에서 다짐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한없는 한은 이해하기 힘들다. 단순히 세속에 대한 인간적 미련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남별업(終南別業)’에서 느끼는 왕유(王維)의 그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영천의 세속에 대한 관심이 너무 강하다는 데 있다. 영천이 학포에게 보내는 한 잔의 술은 세속에 미련을 다 접어버리고 아차산 밑에서 체득한 달관의 의미가 아니다. 지치를 실현하

33) 權純烈, 앞의 책, 299쪽.

34) 영천이 이별하면서 학포에게 준 2수 가운데 첫 번째 시이다. 『學圃集』 卷之一 參照.

지 못한 회한이나 주변 환경에서 소외된 은자의 고독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V. 결어

학포 양팽손은 기묘사화로 인하여 告身을 박탈당하고 27년간이나 폐고 생활을 했다. 폐고 기간 동안 학포는 자녀를 교육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옥같은 시문을 창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인화에 심취해 남종화의 씨를 뿌렸다. 학포는 여러 면에서 개혁정치를 내세운 당시 사림파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정암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기묘사화에도 깊이 연루되었다. 그래서 학포의 인생에 있어서 정암과의 만남은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로 남는다.

학포 문학의 의미망은 그의 문집이 표실되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특징은 그리움과 회한이다. 그가 비록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먼저 죽어간 동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처신했지만 그의 시에는 동도지인에 대한 그리움과 구차하게 살아 남은 자로서의 회한과 자괴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문학이 인간의 삶과 의식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여유와 낭만이다. 정적들의 끊임없는 비방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학포당에서의 교육, 동도지인들과의 교류, 평소 즐기던 회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그런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음(偶吟)’이다. 논밭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소의 모습은 전원의 아름다우면서도 여유 있는 풍경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여유 속에서 살고픈 회원의 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학포 시문학의 세 번째 특징은 회화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화시가 그러하다. 그리고 제화시에서는 선계 지향성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이것은 폐고와 비방의 질곡에서 벗어나고픈 그의 회원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와 회화는 그의 이상향의 건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수도’의 작자 규명에 있어서도 학포의 이런 심리적 구조와 산자수명한 쌍봉이라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문헌

『大東詩選』

『中宗實錄』 37

姜 沆, 『睡隱集』

朴在馨, 『海東小學』

晏 子, 『晏子春秋』

梁曼容, 『據梧齋集』

梁應鼎, 『松川集』

梁彭孫, 『學圃集』

李晬光, 『芝峰類說』

李 植, 『澤堂集』

林億齡, 『石川集』

奇大升, 『高峰集』

權純烈,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研究』, 月印, 2002.

서영숙, 「정암 조광조의 시에 나타난 갈등양상」, 『古詩歌研究』 第九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2.

申章燮, 『韓國 「箕東樂府」 註解』, 國學자료원, 1997.

K C I

<Abstract>

A Study of the Literature of Hakpo Yang Paeng-son

Kwon, Soon-yoel

Hakpo Yang Paeng-son was removed from his government post and exiled for twenty-seven years. During the exile, he educated his children, wrote poetry of rare beauty, and engaged in painting in the literary artist style.

In an examination of his existing works of art, it was found, first, that they represented yearning and remorse. His poetry reflected yearning for fellow scholars and remorse and a sense of shame caused by the thinking that he was indigent. Secondly, inner resources and romanticism were frequently expressed in his poetry. Despite continuous criticism from political opponents, he was able to be calm thanks to his education at Hakpodang, his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with fellow scholars, and his hobby of painting.

Thirdly, his poetry had various elements of painting. In particular, he was good at educational poetry, and his educational poetry was strongly directed to a fairyland. His poetry and painting were related to construction of a Utopia.

Key words : Hakpo, exile, fellow scholars, educational poetry

<논문투고일 : 2003.12.31 심사완료일 : 2004.1.31. 게재확정일 : 2004.2.14>

к с і